

Winter
2023"뿔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14)

이 HIS Messages

Devotion

디오코 - 단합의 명령

오영준 중고등 성경 교사

... 로마 군대는 "디오코" (διώκω)라는 전쟁 구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령관이 전쟁 중에 외치는 명령이었는데, 특별히 로마 군대가 적군에게 지고 있을 때 내려지는 명령이었습니다. 디오코는 헬라어로 "몰고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 용어로 쓰일 때 디오코는 밀고 추진하다 혹은 전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령관이 "디오코"를 외칠 때 군사들은 모두가 듣도록 "디오코"로 대답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디오코"를 들으면 격려의 소리가 되었고 오직 함께 싸우는 것만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상기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적군이 "디오코"를 들으면 낙담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로마 군대가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14에서 바울은 로마 군대의 "디오코"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단합을 이루고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돌봐 주어야 합니다. ...

[더보기](#)

The Bible Says About

흡연은 죄인가요?

김앤드류 중고등 성경 교사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전서 6:19-20)

이 구절이 말하듯이, 우리는 성령의 성전이며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흡연은 우리 몸을 오염시키고 더럽힙니다. 또한 누군가 여러분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불어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것을 즐기시나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그리스도인이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얼굴에 연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담배가 우리 몸에 미치는 위험과 해악이 밝혀졌습니다. 해롭고 몸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결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6:12)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며, 흡연에 중독된 사람들은 흡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저의 희망과 기도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악되고 해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이 습관을 끊고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Elementary

Reading Under the Stars

생각이 자라나는 가을: 별빛독서축제

박에스더 디렉터

별빛독서축제는 HIS 초등학생들이 가장 고대하는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 신나는 축제는 9월 15일 저녁 어스름이 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비 때문에 야외에서 진행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멋진 밤이었습니다.

별 빛 속에서 들려오는 책 속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을 키워 보았습니다. 보드게임과 만들기를 통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일별빛시장에서 상품과 간식을 사면서 친구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생님과 학부모, 중고등학생의 섬김으로 더 다채로웠던 별빛독서축제였습니다. 동물, 책 속 캐릭터, 유명인, 전통 의상, 잠옷 등으로 분장한 모두는 서로를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학생들이 별빛독서축제를 통해 독서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Korean Writing Contest

ES 학생들의 따뜻한 감성이 묻어난 詩畵

김수정 국어·사회 교사

국어·사회 수업 시간에 ES 학생들은 자신의 문학적 감수성을 한껏 발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제 시 제목은 ‘하늘 공장’인데요, ‘하늘 공장’ 밖에 생각이 안났어요. 친구들이 제 시를 보고 웃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재밌어 해서 성공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써보려고요. (양은유)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가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 중요해요. 제 주제는 ‘기도’이고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를 썼어요. 그런 마음으로 쓰니 시가 잘 써졌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것도 봤는데 진짜 다 잘했더라고요. (진서울)

하나님께 궁금한 게 많아서 시를 썼어요. 완벽하지는 않은데요, 하고 나니 뿌듯해요. 앞으로도 궁금한 게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동생들아, 너희도 궁금한 것들은 기도로 찾아보고, 주변에 물어보면 좋겠어!” (임윤초)

더보기

Korea Day

다채롭고 고운 초등 한국의 날

조하나 국어·사회 교사

화창하고 아름다운 가을 날씨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HIS 초등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 문화를 더욱 아름답게 발전시키고 세계 곳곳에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더보기

“ 제가 경험하는 마지막 한국의 날이었어요. 제가 1학년 때 한국의 날 부터 5학년 때까지 친구들과 더 많이 어울리지 못한 것이 약간 후회되요. 그래서 다른 학년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제 때에 모든 것을 즐기면 좋겠어, 기회가 있을 때 말이야. (송영준)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이나 전통문화에 대해 좀 더 배우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는 말고요.) 단순히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좀 더 깊게 배울 수 있도록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직접 전통놀이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준비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은울)

”

최선의 경기로 슛팅: SKAC 풋살 대회


하윤수 체육교사

한동글로벌학교 주최로 SKAC Futsal Finals 대회가 양덕에 위치한 축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총 7개 학교에서 24개의 팀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 학교 학생들도 비장한 각오로 대회에 임했습니다.

...

결국 5번째 선수까지 차례가 넘어가며 양쪽 모두 골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Boy B팀의 주장이자 골키퍼인 김민준 학생이 드디어 첫 골을 성공시켰고 상대방의 마지막 선수의 슈팅도 멋있게 막아내며 한동글로벌학교의 우승을 결정지었습니다. Boy B 팀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멋진 경기를 보여준 우리 학교 출전 선수 모두가 한동글로벌학교의 자랑입니다.

더보기

Boys B: 1위 

(포기 않는 팀워크의 승부차기로 최종 우승, 금메달 확정!)

가을의 자연을 누리며: 초등 현장학습

오시경 4학년 담임교사

10월 26일, 초등학생들이 대구에 있는 신전 박물관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습니다. 떡볶이 관련 박물관인 만큼 떡볶이 키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직접 키트를 꾸며서 집에 가져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떡볶이도 맛보고 킥보드도 타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

더보기

“

떡볶이에 대해 배우는 게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또 가고 싶어요. 밀키트 만들기가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았어요! (김시은)

"일하는 로봇은 신기했어요. 스쿠터를 타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고요. 진짜 다 멋졌어요. 또 오고 싶어요. (김민준)

”

마지막 여행, 그렇지만 영원할 우리의 기억

이정은 6학년 담임교사

10월 25일에서 27일까지 사흘동안 6학년 학생들은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부모님의 곁에서 떠나 처음으로 오랜 시간 반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기에 학생들에게는 더욱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졸업 전에 학교 밖에서 배우며 소중한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애써주신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여행의 마지막까지 문제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보기

“

페인트볼로 상대방을 맞추는 서바이벌 게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가 체육 선생님을 두 번이나 아웃시켰거든요. 하하.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는 졸업여행을 계획해 주시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해요. 초등학교 중에 6학년이 제일 좋았어요. 6학년 친구들아, 앞으로도 재미있는 추억 많이 만들자! (최인서)

10월인데도 많이 더웠어요. 그래서 바람을 만끽할 수 있었던 카트레이싱이 가장 기분이 좋았어요. 6학년 수학여행은 재미있고 즐거워요! 특히, 6학년 친구들은 서로 배려를 잘 해줘서 더 좋았어요. 친구들에게 고마워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힘드실 것 같아 걱정되기도 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에요. (성아림)

”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서: 중고등 캠핑트립

박지훈(고등) · 김조이(중등) 학생회 임원

캠핑트립의 첫날은 새벽 4시 30분까지 학교에 등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HS가 첫 번째로 방문한 장소는 바로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었다. 특히, 10학년은 캠핑트립 일주일 전부터 양화진에 대한 조사와 여러 활동들을 하였다. 우리나라에 일생을 바치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여학생을 구하려다 순교하신 아펜젤러 선교사님 등 외국인 선교사의 한국 복음전도 역사를 조사하면서 공부했던 선교사님들의 묘역을 보자니 마음이 먹먹해짐과 동시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

캠핑 여행의 마지막 날, 소백산을 등반했다. 소백산은 바위가 많고 가파른 계단 때문에 오르기가 꽤 어려웠다. 산을 오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할 때는 포기하기가 매우 쉽다. 하지만 막상 해보고 완주하고 나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극복할 수 있다. 힘들에 포기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산에 올라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더보기](#)

문제해결 능력과 협력하는 자세 : 중등 토론한마당

곽인옥 국어교사

제9회 한동글로벌학교(이하 HIS) 중학교 토론한마당이 2인 1팀으로 총 9팀,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선, 본선, 준결승, 결승을 거쳐 9월 22일까지 4주간 개최되었습니다. 토론은 'HIS 교내 스마트폰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 묻지마 살인 예고자는 예외없이(촉법소년 제외) 구속수사해야 한다, 배달앱 리뷰, 별점 제도를 반대한다' 등 우리 사회를 한층 깊이 들여다보고 그곳에서 내가 가져야 할 자세를 발견할 만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3회 연속하여 진행을 맡은 유인영 학생이 "토론을 거듭할수록 논박하는 실력이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좋아지는 것이 확연히 보일 정도"라고 말해 후배들이 고무되기도 하였습니다.

[더보기](#)

하나팀의 교훈: SKAC 배구

한태이(고등), Zion Ray Collier(중등)

이번 대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기는 바로 HIS B1과 B2가 준결승전에서 맞붙은 경기였습니다. 같은 학교끼리의 대결이다 보니 상대 팀이어도 서로 격려해 주며 응원하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

우승의 마지막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모두가 소리를 지르며 기쁨으로 환호했고 서로가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대회에 나가서 다른 팀들과 경쟁하는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즐거움입니다. 비록 최종 우승은 못했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이 경험을 통해 의미 있는 것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늘의 경험과 아쉬움을 발판 삼아 다음 대회에서는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하길 바랍니다. 연습하는 과정과 토너먼트, 부산까지 오고 가는 길까지 함께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응원해 주신 모든 HIS 구성원께 감사드립니다.

[더보기](#)

중고등 버스킹, 작전명: 청춘!

조하림(고등)

‘작전명: 청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시기인 청춘을 노래하는 뮤프가 10월 22일 포항 환호공원에 뒀습니다. 흔히 ‘청춘’이라고 하면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젊은 시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HIS 뮤프는 나이를 막론하고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모두가 청춘을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이번 공연처럼 뮤프는 앞으로도 주님이 주신 음악을 통해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보기

함께여서 좋았습니다, 강철!: 고등 군부대 방문

임혜인 (고등)

10월 29일, HS 학생들은 약 300명의 군인들에게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경상북도 칠곡군에 위치한 강철교회로 향했습니다. 준비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약 3주간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펀드팀, 영상팀 등으로 나뉘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

더보기

“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계획이 다 있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있다. 그 당시 기도를 할 때는 답답했었다. 하지만 기도를 다 한 후 내 영혼이 은총입어 찬양을 부르며 마음에 꽂혔던 찬양 가사. 정말 잊을 수가 없다. (강민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김가빈)

카다쉬 순서가 되었다. 준비했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춤이 전달하는 메시지와 가사에 집중하면서 춤을 추었다. 또 군인분들이 이 무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춤을 추었다. (김예현)

한동은 내가 어렵고 힘든 만큼 무언가를 배우고 얻는 곳이기 때문에 무언극팀에 참여하였다. 시험과 과제도 많고 바쁜 시기지만 모두 활기찬 분위기로 재미있게 연습하고, 무언극팀끼리 모여 기도하는 과정에서 ‘역시 이렇게 한동이지’라는 마음이 들었다. (조성연)

남녀 모두 우승컵을 차지하다 : SKAC 중등 풋살

김수훈 · 차혜움(중등)

11월 14일, 초겨울 바람을 가르며 하루 종일 진행되었던 중등 SKAC Futsal Finals. 남자 A리그 우승과 여자 B리그 우승이라는 결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HIS의 가슴을 뛰게 하였던 것은 서로를 격려하며 신나는 뽀박질로 그라운드를 누볐을 때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작년 SKAC에도 출전했던 친구들도, 올해 처음 출전하는 친구들도 긴장보다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 서로의 모습 덕분에 불필요한 긴장감없이 경기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승전은 생각한 대로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몸싸움도 과격했고 심판과의 언쟁도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골 먹히고 1골 따라잡는 방식의 경기가 지속되어서 양팀 선수들 모두가 힘들어 했지만 끝까지 집중한 것은 우리 한동이었고 1골 차이인 5대4로 결국 승리했습니다. ... 이번 여자 풋살팀은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누군가를 탓하지않고 서로 격려하였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에 임하면서도 친구도 사귄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동에 또 하나의 행복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더보기

Interview

Interview With Newcomers

새로운 변곡점에서, 편입생 인터뷰

박시우·나재인(초등), 조은지·유성현(중고등)

새로 터를 옮겨 자리를 잡을 때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지요. 이번 학기 한동의 식구가 된 편입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몇몇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변곡점에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나요?

더보기

“ 학교가 엄청 좋을 거라 이미 예상했어요. 선생님이 친절하시고 학생들 말에 귀를 잘 기울여 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자율배식인 것도 좋아요. 반대로 한 학년 당 여러 반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반 뿐이어서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귈 수 없다는 점은 아쉬워요. (박시우)

욕을 하는 친구들이 없는 게 정말 좋아요. E.P.E(English Practice Everyday) 덕분에 영어로 말하는 것도 좋고요. 대신, 한국어로 말하는 수업도 있어서 두 언어를 왔다 갔다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 학교에서보다 미술 시간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나재인)

고등은 역시 학업적인 측면에서도 열심히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들 친절해서 말 그대로 한동에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언제 찾아뵙든 마음을 다해 우리를 돕는 선생님들을 뵈고 ‘사명감’을 배워요. (유성현)

한 학기를 지내며 걸보기에만 크리스천스쿨이 아니구나 했어요. 수업을 들을 때나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반끼리만 친해질 줄 알았는데 전체 학년이 친해질 수 있어 좋고 선후배 간의 활동도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숙제도 많고 상대평가라 경쟁해야해서 긴장되긴 해요. (조은지)

Interview With a Teacher

21년간 걸어온 길: 교사 인터뷰

Timothy Northe 중고등 교사

Q 선생님의 핵심 가치가 궁금합니다.

A 제 삶의 성경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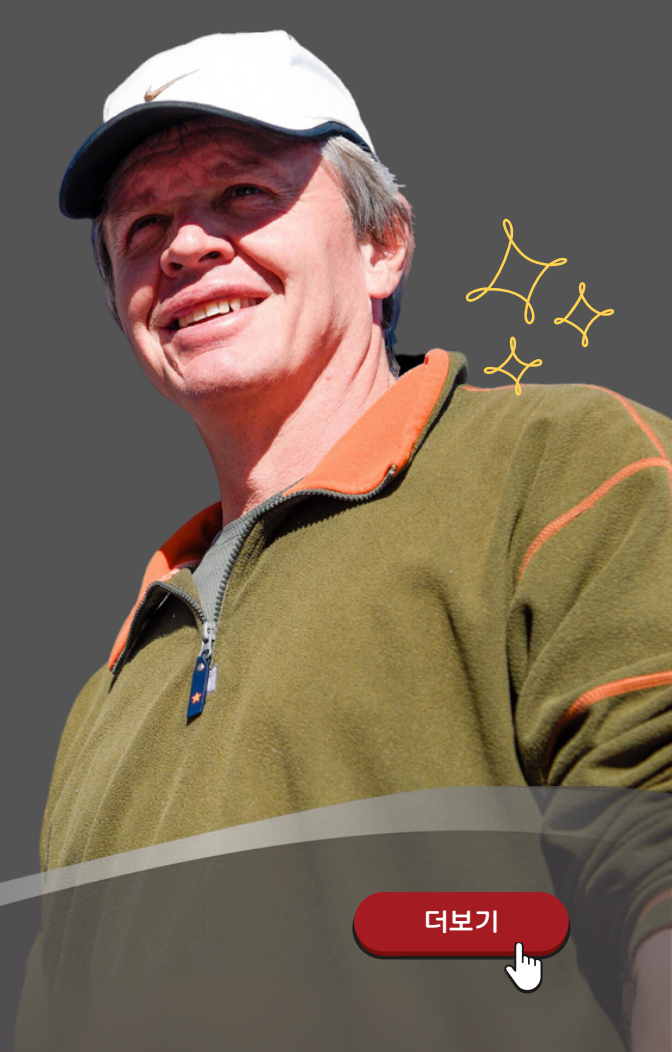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의롭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면 항상 올바른 방식으로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성실과 청렴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제 경우에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항상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화가 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몰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미가 6:6a)

6절 앞부분도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뭔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즉, "삶을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고, 바르게 살고 행동하지 않고 자비롭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모두 시간 낭비라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

더보기



아담과 하와의 가족옷처럼 : 초등 미술 프로젝트

김주환 · 이송현 (초등)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족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 3:21)”

미술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옷입은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를 위한 옷을 디자인해 만들고 입혀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11일, 18일 이틀 동안 모듈별로 작품 제작을 기획하고, 구성하며 모두 열심히 서로를 위한 종이 의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 협력하고 모두의 아이디어를 모아 멋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재료는 모두 종이! 그러나 창세기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만든 그 의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갑옷 같았습니다.

...

[더보기](#)

한동해설집: 중등 미술 프로젝트

여러분에게 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한동의 중학생들은 미술 수업에 '내가 사랑하는 교내 장소, 학교의 특성 등'을 헤아렸습니다. 그들이 구체화시킨 한동 해설집을 소개합니다.

[더보기](#)

학교 건물 모형 제작 | 이준민



학교에서 사랑하는 공간을 선정하고 이를 재현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케일을 배우고 제공된 학교 도면을 바탕으로 치수가 없는 부분은 저희가 줄자로 직접 실측했습니다. 1/60 스케일 축소 모형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캠핑트립 티셔츠 디자인 | 소이레



HIS는 제게 하얀 도화지입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채로운 행사와 공모전은 저의 특기와 꿈이 무엇인지 마음껏 펼치고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었습니다. 이번 캠핑트립 티셔츠 디자인 공모전 역시 저에게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였고 저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생각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학교 캐릭터 디자인 | 박지호



한찰(한동찰떡)은 HIS의 부드러움과 끈끈한 친구들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찰떡이 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했습니다. HIS 친구들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친구들을 감싸주고 친절함으로 상대방을 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부드럽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찰떡으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

학교 캐릭터 디자인 | 최로아



'방물이'는 모두가 하루를 즐기며 흘리는 땀방울, 즉 공동체의 의미를 강조하는 상징입니다. 또한 '구르미'는 심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협력하여 극복하는 경험은 학교 생활 뿐만 아니라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가치 있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

현대판 인왕제색도: 고등 미술 프로젝트 I

이주원 · 임소망(고등)

현대판 인왕제색도를 완성하기 위해 먼저 다양한 투시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가 정선이 그린 인왕제색도를 참고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현대의 인왕산은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하면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모두 인왕산이라는 같은 풍경을 보았지만, 각기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렸기에 비슷하지만 개성있는 나만의 현대판 인왕제색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 미션홀 1층에서 전시 중이니 잠잠히 감상해보며 동양화에 대한 안목을 키워보시길 추천합니다. ...



더보기

패턴이 된 아이디어, 현실이 된 소망 : 고등 미술 프로젝트 II

잊혀진 과거의 물건이나 애착을 그다지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다시 손을 타고 사용되는 것이겠지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여기 이 잊혀지고 버림받은 것에 공판화 기술을 이용해 '내가 특별히 좋아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입혀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기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매일 소망하길 바랍니다. ...

더보기



도서부 발행 코코보코 신문(Vol.2)

이희정 사서



2학기를 맞아 중고등 도서부 독서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인문학' & '자연 생태와 인문학' 두 가지 주제로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음식과 자연생태를 재료로 독서에세이를 준비한 도서부의 다양한 활동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리더이자 편집인 양아인(고등) 학생 외 13명의 도서부 학생들이 발행한 신문을 통해 우리 학교 도서부의 진리를 향한 선한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HIS의 모든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과 책에 더욱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더보기

